

[바 둑]

“이런 묘수가...” 구례에 바둑 열풍

19~20일 '전남지사배 전국 아마대회' 성료 학생·일반·여성·동호인 등 1천여명 열기 오규철·장두진씨, 다면 지도 대국도 호응



전국 유명 바둑대회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제4회 전남도지사배 전국 아마바둑 최강자 대회가 지난 19일 구례군에서 열렸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열리는 유일한 전국 바둑대회인 제4회 전남도지사배 전국 아마바둑 최강자 대회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번 대회는 바둑이 2010년 중국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그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구례군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조민수·하성봉·심우섭 아마7단 등 아마바둑계의 최강자 70여 명이 참여했다. 초·중·고교 학생부 2백90여명, 일반강자부, 여성부 등으로 나눠 500여명의 선수들이 자웅을 겨뤘다. 또 박준영 도지사, 서기동 구례군수, 영동인 전남바둑협회장, 김상태 구례바둑협회장, 바둑동호인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아마최강부는 박문홍(52·경기도 성남시)씨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일반부는 김희관(46·장성군)씨, 일반단체부는 목포대불대, 여성부는 노영선(43·목포시)씨가 각각 우승했다.

학생부는 윤선웅군(15·광양중 3년), 초등고학년부 최우형군(13·나주초 6년), 초등중학년부 박무성군(10·여수부영초 4년), 초등저학년부 정용우군(8·순천율산초 2년)이 차지했다. 대회가 끝난 뒤 본보 바둑 해설위원인 오규철 프로 9단과 장

두진 프로 8단이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면 지도도를 해 호응을 얻었다. 또 한국기원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서기동 군수에게 공인 아마 5단증을 수여했다.

한편 박준영 도지사는 “이세돌 등 걸출한 프로기사를 배출

했는데도 이 지역에 변변한 바둑 대회가 없다”면서 “바둑이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고,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연구돼 바둑대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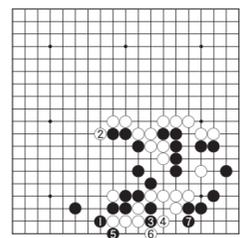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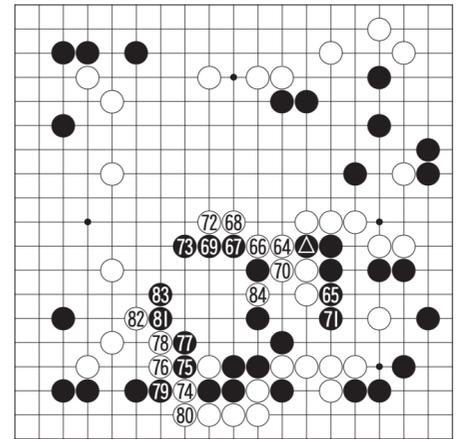
/구례=김동호기자 dhkim@kwangju.co.kr

광주 유대자회 리그전

빠뜨린 수순 하나

5보(64~84)

白 임상빈 6단 黑 박정규 5단



<참고도>

은 무심코 73에 놓고 말았는데, 당연히 보이는 이 수가 수순 하나를 빠뜨린 불각의 한 수가 되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찢혀두는 것이 절대선수로 백이 손을 빼면 흑 3으로 두어 7까지 대마가 잡히고 된다. 그러므로 흑 1을 선수한 다음 실전의 73에 두어야 했던 것이다. 이 차이는 굉장하 컸다.

이제까지 수세에 몰리며 와신상담하던 임상빈 6단 절호의 기회를 잡고 백 74로 찢혀 감습안타를 날리고 있다. 그런데 백 78이 또 오버런으로 모처럼 맞이한 감습안타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만다. 이 수로는 그냥 79에 이어두는 것이 좋았던 것이다.

서로 실수를 주고 받으며 백 84까지 치열하게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백이 72로 밀었을 때 박정규 5단

흑 72로 뚫어 흑이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장면이다.

임상빈 6단은 이대로 밀리면 끝장이라는 것을 감감하고 있다. 그래서 안간힘을 다해 백 64로 찢히고 흑 65와 71은 두터운 면서도 필요한 수. 이쪽에 힘을 비축해 놓아야 힘을 쓸 수가 있다.

백이 72로 밀었을 때 박정규 5단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 두며 영어 배우세요”

바둑을 두며 영어도 배울 수 있게 됐다. 아시아바둑연맹 사무국장과 대한바둑협회 국제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씨가 최근 바둑영어 교실을 개설했다.

바둑영어는 바둑의 서양 보급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승부수’(do or die move), ‘쌍림’(bamboo joint), ‘이적수’(thank you move) 등 바둑 용어를 번역해 영어 회화를 익히는 학습 방법이다. 해외 바둑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해 바둑계에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결은마 단계이며, 바둑 영어교실이 열린 것은 드문 일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305對 1 관문 뚫어라”

LG배 세계기왕전 통합예선전 한·중·일 프로·아마 총 출동

제13회 LG배 세계기왕전 예선전이다. 참가자인 305명의 국내외 프로기사가 출전한 가운데 통합 예선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기원은 25일 “지난 20일부터 통합 예선전이 시작됐다. 총 5라운드를 거쳐 최종 본선진출자 16명을 선발하게 되며, 시드 진출자 14명과 우승컵을 다툰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2일까지 예선전을 마무리 하고, 5월 26일부터 본선전이 시작된다.

이번 대회에 주최국인 한국은 196명이 출전했다. 한국은 4월 랭킹 순위에 따라 이창호 9단, 목진석 9단, 조현승 9단, 원성진 9단, 박영훈 9단 등이 국가 시드 배정을 받았다. 여기에 LG배 아마추어 대표선발전에서 우승, 준우승을 차지한 김현찬 아마 5단, 홍석의 아마 6단을 비롯하여 4강 진출자인 이호승 아마 6단, 박영운 아마 5단이 출전했다.

지난 대회에서는 이세돌이 한상훈을 2-1로 꺾고 우승했다. 한국은 이창호가 4차례(1, 3, 5, 8회), 이세돌이 2차례(7, 12회), 유창혁이 1차례(6회) 우승하는 등 이 대회에서 모두 7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수가 출전한 일본은 아마다 기미오 9단, 이아마 유타 7단 등 총 55명이 참가했다. 일본은 기성타이를 보유자인 아마시타 9단을 비롯하여 장쉬 9단, 조지훈 9단, 고노리 9단 등이 본선 진출 시드를 따냈다.

중국인 왕시 9단, 천야오에 9단 등을 비롯하여 총 4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중국은 구리 9단, 장하오 9단, 치우현 8단, 롱지에 7단 등이 시드배정을 받았다.

대만은 천스위엔 7단, 유경민 6단 등을 포함해서 총 10명이 LG배 대전에 도전한다. 대만은 최근 대만기원에서 제11회 선수권자인 저우원선 9단이 응창기교육기금회의 추천을 받아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13회 LG배 통합예선전에서 총 5라운드의 예선전을 거쳐 총 16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억원짜리 명품 바둑관 ‘진실공방’

<오정원반·세고예반 세트>

소장자가 판매 의뢰 후 사망

유족 “매각대금 달라” 소송…1심 승소

윤기현씨 “증여받은 것” 결백 주장

시가 1억원이 넘는 명품 바둑관의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바둑계의 법정 다툼이 당사자들의 기자회견 공방으로 다시 불붙었다.

명품 바둑관의 판매를 의뢰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기현 9단은 최근 한국기원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동운 부장판사)가 “바둑관의 소유주 김영성씨(전 삼원삼우 대표)가 윤기현씨에게 바둑관 세트 매각을 위임한 것이 인정된다. 판매대금을 소유주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대한 이의 제기였다.

윤씨는 “고인이 바둑관 두 개를 나에게 건네면서 ‘마을에 드는 것 하나는 나에게 선

물했고, 나머지 하나는 ‘보관하고 있다가 팔아서 부인에게 1억 정도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반면 윤씨의 기자회견에 맞서 김씨의 유족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인이 2004년 급작스럽게 간암 관장을 받았고, 회사 사정마저 어려워져 바둑관을 팔게 됐다. 이를 윤씨에게 부탁한 것인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바둑관은 ‘오정원반’과 ‘세고예반’이다. ‘오정원반’ 세트는 중국의 바둑천재 우정원안(吳淸源·94)의 서명이 있고, 일본산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과 흑·백 조개 바둑알, 바둑봉, 바둑통 보관함으로 구성됐다.

또 ‘세고예반’은 일본 바둑계의 거장인 고(故) 세고에 겐사쿠(瀬越憲作·1889~1973) 9단과 일본 대신들이 서명한 희귀 바둑판이다. 이를 바둑관은 희소성을 인정받아 최고의 명품으로 가격은 1억원을 호가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전철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 (062)220-0551	건강식당 동구 광동 예술거리~동부경찰서 주차정원 100%유기농채소만든 매일국수,모밀짜장 아채비빔밥,아채비빔모밀 ☎(062)236-3679	남양인테리어 북구 운암동 대우@입구원 사무나,단란주점,노래방,레스토랑,집수리 어린이집 리모델링 전문업체 ☎(062)512-1777	이레디자인 북구 북동 수창초교 후문앞 상업공간,APT리모델링,실내인테리어 대표 김남수 ☎(062)529-8567	소리나라음악학원 북구 용두동 용두주공APT 후문앞 피아노,바이올린,드럼,기타 대표 추미숙 ☎(062)571-7715	고향사람들 서구 매월동 산업용제유센터23동107호 토속음식전문점,옛날추어탕,고향비빔밥 생고기,갈비탕,꽃등심 ☎(062)603-0170~1	
쌍용자동차(정성영업소) 장성을 영천리 장성읍사무소앞편3거리 신차구입및 출장 상담환영 대표 전용호 ☎(017)602-4248	미소튀김 동구 계림동 한국화장품 뒤편 튀김전문점(저렴 배달시 튀김인분 서비스) 대표 정동현 ☎(062)233-8246	영암독천낙지골 북구 두암동 두암3동 파출소앞 낙지,갈비탕,낙지볶음,낙지비빔밥,낙지회무침 대표 박영숙 ☎(062)264-5566	태평선식(화정점) 서구 화정동 영주사거리 광주은행 맞은편 영양식,환자식,체질식 등 건강 기능식품 ☎(062)371-8998	광주브러러리 동구 산수동 두암타운입구 4거리 전복요리전문점,독일식정통맥주,단체모임 피로연,각종모임환영 ☎(062)251-4525	세종공인중개사 북구 본촌동 지산중 정문앞 토지,상가,건물,매매,임대 대표 송동호 ☎(062)572-4949	뮤(제즈바) 북구 용봉동 용봉제지거리4거리 낙지마당앞 재즈,커피,와인,여직원구합 ☎(062)524-5054
하이파이하우스 서구 금호동 미재마을 네비게이션,카오디오전문 대표 김대진 ☎(011)603-1521	유학허브 동구 대의동 동부경찰서와 금남로방향 정규조기유학,어학연수,비자상담,합영 대표 이춘화 ☎(062)263-3434	창신DEOC 북구 두암동 능협3거리 벽지,장판,버티칼,틀스크린 리모델링,바닥장식제 ☎(010)3014-8310	정원 동구 금동 구시청사거리 일식전문,아외도시락,침치전문 대표 노동찬 ☎(062)366-8000	이조가구수리전문 북구 신안동 장춘수퍼앞 가구수리전문 대표 서강동 ☎(010)3575-9230	공구당구장 서구 매월동 공구상가 광주은행4거리 최신형 당구다이얼치워비,이능현공간 최상의 서비스제공 여 아르바이트구합 ☎(062)603-4427	케이티모터스 북구 각화동 대동한방병원 옆 핀금,도색,특수열처리,교원기족특별우대 교통사고전문상담원함시상주,신속정확한수리 ☎(062)267-4972
쉽S'미술 북구 오차동 한전후문 하 오차로당 맞은편 유화수채화,아크릴화,실용디자인,회화수시모집 대표 전은실 ☎(010)3014-8310	푸른건강원 북구 동향동 광주교대편 E마트건너편 양파즙,배즙,포도즙,각종과일즙 대표 이동현 ☎(062)512-2752	늘기쁜지역아동센터공부방 북구 두암동 동강대후문 동사무소 맞은편2층 초등학생,방과후 숙제및 학습지도 무료수강생 모집,영어,한자 피아노까지 별도지도 ☎(062)511-6771	퀴리날레 동구 황금동 파레스호텔앞 스테이크 전문점 대표 유영철 ☎(062)227-6622	꽃모다 동구 금남로가대신중영역 롯데백화점사이 화환,꽃바구니,관엽,각종꽃 전문점 대표 정금숙 ☎(062)232-7270	지산건설(주) 서구 매월동 공구상가 21동233호 미장,방수,조적,타일,건설업전문 대표 박정환 ☎(062)603-1919	광주본촌동우체국 북구 본촌동647-3 우체국택배,전자우편,국제특송,우체국보험 국장 박인천 ☎(062)571-1293